



사라진 밤. /씨네그루(주)키다리이엔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롯데시네마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그린나래미디어

봄 극장가에 부는 女風... '센 언니들이 돌아왔다'

배우 김희애, 손예진, 고현정이 봄 극장가에 훈훈한 女風을 몰고왔다. 믿고 보는 명품 배우들이 선택한 작품은 각각 '사라진 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이다. 짜임새있는 탄탄한 시나리오에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연기, 거기에 상대 배우와의 케미까지 폭발하니 주말, 혹은 퇴근 후 영화관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김희애는 영화 '사라진 밤'으로 3년만에 관객을 만났다. 지난 7일 개봉한 '사라진 밤'은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CGV 골든에그 지수 97%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2014년 한국에서 개봉한 스페인 스릴러 '더 바디'를 국내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며, 국과수 사체보관실에서 아내의 시체가 사라진 후 시체를 쫓는 형사(김상경),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김강우), 그리고 사라진 아내(김희애)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룻밤의 예측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이 복수에 중점을 뒀다면 '사라진 밤'은 시체를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해 차별화했다. 그 과정에서의 스틸감과 반전은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김희애는 부와 명예를 가진 대기업 회장이자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사라진 아내 역을 맡았다. 도

김희애 '사라진 밤'
스릴러로 3년 만에 스크린 컴백

손예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소설 원작으로 돌아온 '멜로퀸'

고현정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이진욱과 달콤쌉싸름한 '어른 로맨스'

도하고 우아한 외모 뒤에 감춘 비밀스럽고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연기 변신을 했다. 비중에 상관없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김희애의 내공이 느껴지는 영화다. 긴장감과 쫓겨간 반전까지 고루 갖춘 웰메이드 스릴러 '사라진 밤'은 올봄, 추적 스릴러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멜로'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배우 손예진은 소지섭과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관객의 가슴을 축축히 적셔줄 전망이다.

정통 멜로 '클래식'과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진정한 멜로 퀸에 등극한 손예진은 이번 작품으로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예고한다.

그동안 꾸준히 멜로 영화를 제안받았던 손예진이 선택한 작품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다. 영화는 일본 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의 동명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다는 판타지적인 설정이 특징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아들과 함께 일상을 채워가는 남자 우진(소지섭) 앞에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날, 비가 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겼던 수아(손예진)가 기적처럼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원작과 스토리의 결은 동일하지만, 한국 정서에 맞게 대사나 상황들은 다르게 각색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소지섭과 손예진의 로맨스다. 두 사람의 절절한 눈빛과 힘이 맞는 연기 호흡은 진한 애정신이 없어도 실제 연인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 돌아온 멜로 여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드라마 '리턴'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고현정은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으로 돌아온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브뤼셀국제아시아영화제 등 해외 유수영화제의 호평을 받으며 개봉 기대감을 높인 이진욱,

고현정 주연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은 오래된 인연의 설렘과 떨림을 그린, 그야말로 '어른 로맨스'라 할 수 있다. 고현정에게는 '미쓰GO' 이후 6년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한때 소설가를 꿈꿨으나 지금은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남자와 촉망받는 소설가이지만 도무지 새로운 글이 써지지 않는 여자의 우연한 재회를 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 '여왕의 교실' '더 마이 프렌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카리스마있는 연기력을 입증한 배우 고현정은 차기작에 매진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소설가의 섬세함을 소화했다. 거기에 이진욱과 오래된 연인이자 헤어진 연인, 그리고 다시 만난 연인으로 연기 호흡을 펼쳐 한계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두 남녀의 현실적인 상황과 우연한 재회가 삼청각을 비롯해 서촌 곳곳을 배경으로 그려질 예정이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도심 로맨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정적인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와는 또 다른 매력에 담긴 달콤쌉싸름한 어른 로맨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은 4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에피덴드롬

송얼 송얼 웃음 가득,
어우러져서 꽃입니다
빛나서 희망입니다

/고흥근 작

'올림픽 2관왕' 최민정, 세계선수권도 2관왕 달성

쇼트트랙 1500m·500m 금
2년 만의 왕좌 탈환 '청신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번 2관왕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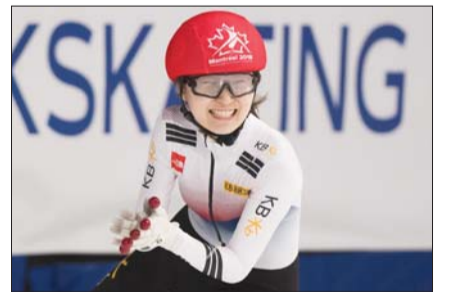
최민정은 18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35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평창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은 세계선수권대회 15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이종목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는 최민정에 0.117초 뒤진 2분23초468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만언니' 김아랑(고양시청)은 아쉽게 4위에 올랐다. 2분23초609를 기록한 김아랑은 김부탱(캐나다·2분23초592)에게 0.017초 차이로 동메달을 내줬다.

최민정은 500m 금메달에서도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특히 평창올림픽 500m 결승에서 실격 판정으로 은메달을 놓쳤던 그녀는 한 달여 만에 세계선수권 500m를 제패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2015년, 2016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빛나는 최민정은 지난해 이 대회 여자



최민정이 세계선수권대회 500m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500m에서 실격 당했고, 1500m에서는 넘어지는 불운을 겪으며 대회 3연패에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초반에 금메달 2개를 휩쓸며 2년 만의 왕좌 탈환에 청신호를 켰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3월 19일

음력: 2월 3일

수도권 날씨

6 ~ 1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8 | 해질 / 18:43

연천 4/15, 동두천 5/15, 가평 5/11, 파주 4/15, 서울 6/13, 양평 6/12, 인천 5/12, 수원 6/12, 용인 6/12, 평택 6/11

백령도 2/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김도연(K-water, 사진)이 2018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2시간25분41초에 뛰면서 한국 마라톤 기록을 새로 썼다. 앞선 기록은 1997년 권은주가 세운 2시간26분12초로, 김도연은 21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31초 앞당겼다.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19일 오전 10시 45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선수촌 국가광장에서 해단식을 연다.
- ▲ 한국 대표 왼손 투수 김광현(SK와이번스)의 정규 시즌 등판 날짜가 25일 문학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로 확정됐다.

김광현은 지난 14일 NCD아이스하키팀에서 컨디션 점검을 마쳤다.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톱7' 최다빈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즐기고 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 여자컬링 대표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후 첫 대회인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대표팀은 19일 체코, 덴마크와 예선 2, 3차전에 나선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MLB 시범경기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경기 연속 장타를 터뜨렸다. 타율은 0.355(31타수 11안타)로 소속 끌어올렸다.
- ▲ 애런 헤인즈를 잃은 프로농구 서울 SK가 KBL에 새 외국인 선수 제임스 메이스의 가승인 신청을 했다.